



홍건희, 공도 자신감도 묵직해졌다



타이거즈 마운드 줄부상에 전천후 활약
투구폼 변화로 직구 구속 150km대 찍어
“선발 욕심 나지만 꾸준한 모습 보일 것”

묵묵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선수다. KIA 투수 홍건희가 묵묵하게 발전하고 있다.

부상 악재가 겹친 KIA 마운드에서 홍건희가 조용하게 자신의 역할을 소화해 주고 있다. 3일 현재 홍건희는 10경기에 나와 15.1이닝을 소화하면서 2.35의 평균자책점으로 1홀드 1세이브를 기록했다. 7개의 볼넷을 허용했지만 16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지난달 29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홍건희는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홍건희는 4-1로 앞선 8회 2사 1루에서 등판해 1.2이닝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첫, 투산 두 번째 세이브를 챙겼다. 그

리고 지난 3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3-1의 박빙의 승부가 전개되던 8회 무사 1·2루에 등판해 1실점으로 위기를 막으면서 시즌 첫 홀드를 만들었다. 프로 데뷔 후 첫 홀드다.

6.05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4패 1세이브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경험이 홍건희의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 실패의 순간도 많았고, 높은 프로의 벽도 느껴지만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기 운영 능력을 얻었다.

성실하게 준비했던 올 시즌이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았다. 내심 선발 자리도 노렸지만 시범경기에서부터 이상하게 운이 따르지 않았다. 등판을 준비하면 비가 내리

는 등 로테이션이 밀리면서 2군에서 더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정규시즌에서도 임시 선발로 낙점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비를 만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여기에 마운드의 줄부상이 이어지면서 홍건희의 자리는 볼펜이 됐다.

욕심만큼 시즌 초반을 풀어가지는 못했지만 홍건희는 묵묵하게 시즌을 보내면서 진화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홍건희의 직구다. 140km 후반대의 공을 보유하고 있던 홍건희는 공에 스피드와 힘을 보탤 수 있다. 직구 최고 구속이 151km를 찍었고 공은 더욱 묵직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파고 들고 있다.

홍건희는 “작년에라도 직구 구속은 나와

서 자신은 있었다. 트레이닝과 밸런스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 힘이 더 붙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화를 준 투구폼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건희는 와인드업 자세에서 글러브를 머리 뒤로 넘기는 폼으로 변화를 줬다. 한 박자 숨을 죽이고 공을 던지면서 제구에 정교함을 더했다.

홍건희는 “제구가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폼을 바꿔서 하다 보니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다”며 “당연히 선발 자리에 욕심이 나고, 욕심을 냈지만 지금은 어는 자리에서든 나가는 자리에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팀에 보탬이 되자는 생각뿐이다. 부상으로 많이 빠져서 불펜진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역할을 내가 잘 해야 한다. 건건히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어찌 됐든 지금 나에게 기회가 왔다. 꾸준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 야구 황금사자기 출전 “목표는 우승”

주말리그 전라권 우승
8일 마산고와 격돌

광주 동성고 야구부가 제 2의 부흥기를 예고한다.

동성고는 최근 마무리된 2016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대결에서 6승1패의 전적으로 전라권 우승을 차지했다. 전라권 1위로 황금사자기 출전권을 거머쥔 동성고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목동야구장에서 마산고와 첫 경기를 치른다.

투·타의 고른 전력으로 대회 디코스로 꼽히는 동성고는 역시 경상권B조 1위를 차지한 저력 있는 마산고와 첫 판부터 세계 붙는다. 어려운 승부가 기다리고 있지만 동성고는 차분하게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주장 박진수는 “긴장이 많이 되지만 그만큼 기대도 된다. 즐기면서 즐겁게 하자고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4번 타자로서 장타 능력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파워 히터” 박진수와 3번 타자 김석환은 프로구단 스카우트들이 눈여겨보는 특급 외야수다. 각각 188cm, 187cm의 장신인 두 선수는 타격 실력만큼이나 강건이라는 장점을 활용한 좋은 수비 능력도 보여주고 있다.

에이스 김진호를 앞세운 마운드에서는 이주현의 상승세가 반갑다. 김정연까지 3학년 우완 3명에 140km대 공을 던지는 1학



2016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전라권 우승팀인 광주 동성고의 김재덕 감독(오른쪽)과 주축 선수들이 오는 8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리는 황금사자기 마산고와의 경기를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년 좌완 김기훈까지 마운드 구성도 좋다. 대형포수로 눈길을 끄는 2학년 한준수가 안방마님으로 이들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김재덕 감독은 “일단 4강을 목표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분위기를 타면 충분히 우승도 바라볼 수 있다. 지난해 전국체전 동메달을 이루었던 2학년들이 3학년 주축 선수가 되어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다. 저학년부터 된 선수들이 많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뭔가를 지시할 필요 없이 경기를 풀어간다”며 “고등학교 야구는 첫 경기가 중요하다. 첫 시합만 잘 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 감독의 이야기처럼 김한빈(3루수), 박건우(2루수), 이재홍(유격수), 최정현(외야수) 등 3학년이 짜임새 있게 팀을 구성하고 있다.

김 감독은 “2003년 동성고가 전국대회 우승을 하던 전성기 시절처럼 전력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흑시 모를 부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백업요원들도 좋아졌다. 동성고의 또 다른 전성기를 위한 시즌을 잘 보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주말리그 전반기 전라권 결과에 따라 우승팀 동성고와 함께 2위 군산상고(6일·충암고), 3위 광주일고(8일·용마

고·장충고 승자), 4위 순천 효천고(7일·소래고)가 황금사자기에 출전한다.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전라권)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이재홍(동성고) ▲우수투수상: 이주현(동성고) ▲감독상: 성종훈(군산상고) ▲수훈상: 박건우(동성고) ▲타격상: 김정현(타율 0.526·광주일고) ▲도루상: 신철안(8개·인상고) ▲홈런상: 노승환(2개·광주일고) ▲감독상: 김재덕(동성고) ▲공로상: 이현중(동성고 교장)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200이닝 던진다는 헥터, 고맙다”

덕아웃 **T** 특독

▲괜찮아요 = 더 던져도 괜찮다는 헥터다. 헥터는 지난 3일 롯데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 117개의 공을 던지며 7이닝을 소화했다. 5피안타(1피홈런) 4볼넷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한 헥터는 경기가 3-2로 끝나면서 시즌 3승, 홈에서의 첫 승리를 신고했다. 선발 로테이션에 따라 8일 경기까지 소화해야 하는 만큼 벤치는 이날 경기 6회가 끝난 후 헥터를 교체하려고 했다. 하지만 헥터가 “괜찮다”는 의사를 보이며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헥터는 경기 끝난 뒤 “홈에서 좋지 않아서 더 집중해서 던지려고 했다. 초반에 흔들렸지만 한 명 한 명 집중해서 던졌다. 7이닝을 소화한 것은 괜찮다. 올 시즌 200이닝을 던지는 게 내 목표다”며 웃었다.

▲후쿠오카동이라도 들려서 올 것 그랬나 = KIA는 오는 6일부터 넥센과의 원정경기를 치른다. 시범경기에서도 찾아가보지 못한 고척스카이돔에서의 첫 경기. 돛구장이라는 낯선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기태 감독은 “마음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다. 돛구장에서 경기를 해보면 조금 붓 뜨는 느낌이다. 타구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일정과 대관 문제 상 한 차례도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하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리는 김 감독이다. 김 감독은 “캠핑 끝나고 올 때 후쿠오카동이라도 들려서 올 걸 그랬다”고 농담을 한 뒤 “어떤 여건에서도 적응해야 하는 게 프로다. 금방 적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를 6회 끝나고 교체하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밸런스가 좋다면서 더 던지겠다고 했다”며 “그런 마음이 고맙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나가고 없는 상황들을 알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언급했다.

▲후쿠오카동이라도 들려서 올 것 그랬나 = KIA는 오는 6일부터 넥센과의 원정경기를 치른다. 시범경기에서도 찾아가보지 못한 고척스카이돔에서의 첫 경기. 돛구장이라는 낯선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기태 감독은 “마음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다. 돛구장에서 경기를 해보면 조금 붓 뜨는 느낌이다. 타구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일정과 대관 문제 상 한 차례도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하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리는 김 감독이다. 김 감독은 “캠핑 끝나고 올 때 후쿠오카동이라도 들려서 올 걸 그랬다”고 농담을 한 뒤 “어떤 여건에서도 적응해야 하는 게 프로다. 금방 적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박병호 7호포... AL 홈런 3위

12타점 팀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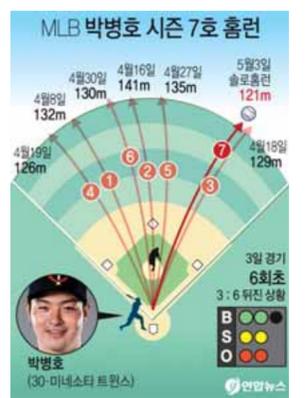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시즌 7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박병호는 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메이드파크에서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벌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6으로 밀린 6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추격의 솔로포를 날렸다.

박병호는 휴스턴 선발투수 폴린 맥휴의 7구째인 시속 146km 직구를 밀어쳐 오른쪽 외야 스탠드 2층에 꽂히는 대형 포물선을 그려냈다. 파울을 3개 걷어내며 2볼-2스트라이크로 맞서다가 끝내 홈런포를 터트렸다. 박병호의 시즌 7호 홈런이다. 박병호는 지난 1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 경기에서 시즌 6호 홈런을 생산한 지 3경기 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했다. 앞선 3일에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 3루타를 때려 장타 감각을 유지해왔다.

박병호는 미네소타 팀 내 홈런 선두, 아메리칸리그 신인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타점 분야에서도 미겔 사노를 제치고 팀 내 1위(12점)로 올라섰다.

박병호는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풀 카운트 승부 끝에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



났고, 4회초에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시속 117km 커브에 속아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6회초 홈런 이후 9회초 선두타자로 나왔지만,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이날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박병호는 지난 1일 이후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시즌 타율은 0.250(7타수 19안타)을 유지했다.

미네소타는 박병호의 추격 홈런 이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아 4-6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LPGA ‘코리안 파티’ 이어질까

오늘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 유소연 등 출전
리디아 고·박인비 등 세계20위 내 11명 불참

올해 열린 11차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한국 또는 한국계 동포 선수들은 10승을 휩쓸었다.

한국 선수로는 장하나(25·비씨카드)가 2승을 거뒀고 김효주(21·롯데)와 김세연(23·미래에셋), 신지은(24·한화)이 1승씩 보탤 수 있다. 또 한국계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노무라 하루(일본)가 나란히 2승, 호주교포 이민지가 1승을 기록했다.

2월 혼다 타이랜드에서 레시 토포슨(미국)이 우승한 이후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선수들이 7개 대회에서 연달아 정상에 올랐다.

5일 미국 앨라배마주 프랫빌의 RTJ 골프 트레일 세네이터 코스(파72·6599야드)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에서도 ‘코리안 파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007년 창설된 이 대회는 주로 가을에

열렸으나 올해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중북을 피하기 위해 5월로 개최 시기가 앞당겨졌다.

그러나 우승 상금 19만5000달러(약 2억2000만원)가 걸린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20위 내 선수 가운데 9명만 출전해 다소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세계 랭킹 1~3위인 리디아 고, 박인비(29·KB금융그룹), 토포슨이 모두 불참하고 10위권 내에서는 4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5위 브룩 헨더슨(캐나다), 8위 양희영(27·PNS), 10위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 등 4명만이 대회에 나온다.

지난주 텍사스 슛아웃에서 우승한 신지은도 이번 대회 기간에는 휴식을 취한다.

상위 랭커 중에서는 루이스가 2012년 이 대회 우승 경험이 있고 양희영 역시 지난주 텍사스 슛아웃 공동 2위에 오르며 우승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